

# 與 “밀리면 레임덕” 초강경...野 ‘대선 전초전’ 기선잡기

## 여야 ‘강대강 대치’ 노림수는?

### 우병우·최순실 게이트 의혹 등 공세 피하기 논란 대선 지지층 결집도 노려...파행 장기화 모두 부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되돌아오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으로 재편될 때부터 내재한 갈등의 불씨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국감 개시와 맞물려 대치 정국으로 폭발한 것이다.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견집을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크다. 이러한 위기감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릴레이 1인시위, 국정감사 거부 등 여권의 초강경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당의 강경 태도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장관은 모두 물러났다는 전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김 장관 해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야권과의 일전을 선언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관을 해임시킨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굴복하는 것으로, 하반기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큰 국정감사 거부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및 법적 대응까지 내세운 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현재의 구도를 크게 뒤 흔들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감 파행 국면으로 우병우 청와

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씨 의혹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해임건의안 정국’에 다소 가려졌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야권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해임건의안 사태와 국정감사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국감이 해임건의안 정국에 묻혀버릴 경우 ‘우병우 의혹’, ‘최순실 의혹’ 등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돌입으로 여야의 합의 도출 등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와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 등 여권의 일방적 행태는 결국 민심의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 싸움’ 차원이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특히, 야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차례로 밝혀내는 한편,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쟁점화, 전통적 야권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 파행 등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수록 이에 대한 민심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어떠한 정치적 퇴로를 만들어 낼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강 가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특강을 위해 유병진 총장과 함께 강연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출구 없는 버티기...국감 이틀째 파행

### 새누리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상임위 6개 개의 못하고 7개野의원 반쪽 진행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7일 이틀째 파행됐다.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이날 역시 모든 국감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야당은 이를 ‘정치쇼’로 폄하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오후 정 의장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했다며 ‘정국

회의장 사퇴 촉구결의안’과 정의장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여야간 대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와 정부·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통신·국방·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

의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야당이 위원장인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는 국감을 진행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상황을 면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국감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국정 운영의 책

임을 진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를 내팽개치고 파행을 장기화할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야권 역시 국감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일정이 비어 있는 28일 남각기를 거쳐 29일부터는 여야간 물밑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국정감사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현장

이틀째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가 27일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반쪽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공세와 추궁은 계속됐다.

### 김영우, 새누리 의원들에 간헐 국방위 주재 무산

◇국방위=이날 오전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 전면 거부’를 선언한 새누리당 당론과 달리 국감 사회를 보겠다고 선언, 오후부터는 국감이 정상화될 듯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사실상 저지해 불발됐다.

김무성·권성동·조원진·황영철·김도읍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번갈아가며 국회 본관의 국방위원장을 찾아가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국방위 국감에 나가지 말라고 김 의원을 설득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국방위원장에 간헐한다”면서 “안타깝다. 이대선 안 된

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서정원·원유철 등 다른 중진 의원들도 김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감 참석 의사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오후 3시10분께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자신의 방에서 나와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동료의원들의 물리적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나는 사회권을 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모래부터 다시 국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위원장 나오세요”...야당 의원들 ‘연서 팩스’

◇법사위=이틀째 파행을 이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에게 국감장에 나오도록 하는 내용의 ‘연서 팩스’를 보내는 상황이 연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무부총청장실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권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권 위원장 측에 전화를 걸어 참석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달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주석에서 만들어 법사위원장실, 새누리당 행정실 등지에 보냈다. ‘요청서’에는 박 의원 등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 전원 이름이 서명됐다. 박 의원은 “헌법상의 국정감사 제도를 시행하는 차이에 여야간의 정치 이념이나 감정을 떠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국감장에 출석해서 개의하고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석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 “모든 것 의문 투성이”...미르·K재단 실세 개입 추궁

◇교문위=야당 단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권력 실세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이날 aT와 문화융성위원회, 한식재단 등이 주관하는 한식세계화 사업 중 에펠 페라디 학교와 진행하는 사업에 미르 재단이 관여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받았다는 부담감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일정이 비어 있는 28일 남각기를 거쳐 29일부터는 여야간 물밑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국정감사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르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닌지 추궁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동성 의원은 “어떻게 두 재단에 대해서는 허가가 하루 만에 날 수 있느냐. 법이 있기 전의 상식의 문제”라고 물었다. 이어 “설립총회 회의록도 두 재단이 똑같다. 한 사람이 써서 등록해서 허가를 내주고, 바로 현판식도 했다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했겠느냐. 사전에 다 모의된 것”이라며 “모금 경로도 의심투성이다. 제가 어떤 기업 임원들과 통화했는데, 전경련 상임부회장 이승철씨는 청와대 비선의 역할이 없으셔는 움직일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 그 주역이 최순실씨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광주전번로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